

2015년

온가족위

가족에게 순서지

목 도 ----- 사회자
 찬 송 ----- 500장 (새찬송 446) ----- 다같이
 기 도 ----- 말은이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주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하셔서 평안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형제, 일가친척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되고, 주님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욕심은 조금 더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며 그 뜻을 따르며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겨낼 주의 자녀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 사 40:9-11 ----- 다같이

9.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세상 살아가는 것이 늘 기쁘고 풍성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살다보면 어려움도 있고, 살다보면 이런 저런 낭패를 당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저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히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땅을 보고, 세상을 보고, 안 되고 절망스러운 현실만을 보고 있지 말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희망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비록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그의 팔로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2)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에, 당장의 낭패에 절망하지 말고, 불의한 방법으로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한걸음씩 걸어가면 강한 자로 임하시고, 그 팔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3) 목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상급과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이유는 그가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아니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때로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야단도 치고, 때로 때리고, 때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삶을 일구어 가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린 양에게 젖먹이는 어미와 같이, 품에 안아주고 돌보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해도 우리 가족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조금 서운함이 있고, 조금 부족함이 있었더라도 풍성한 한가위처럼 마음을 풍성하게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과 개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고인이 되신 우리 가문의 조상들의 뜻을 이어가는 믿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로 어렵고, 때로 힘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돕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가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나눔 시간 ----- 다같이

- 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안아주기
- ② 가족별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감사한 것) 나누기
- ③ 기도 제목이나 앞으로의 계획 나누고 기도하기

찬 송 ----- 434장 (새찬송 384)-----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